



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영향과 시사점

채원영 연구원

- 2013년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IMF · EU · ECB(이하 ‘트로이카’라 함)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켜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, 키프로스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EU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EU의 경기회복과 EU 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현지시간 2013년 3월 15일, 트로이카는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금자에게 손실 부담을 의무화하였으나 2013년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트로이카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음.
 - 트로이카가 키프로스에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은 정부 자산 매각, 법인소득세 인상,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임.
 -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예금 규모가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9.9%, 미만일 경우 6.7%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58억 유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.
 - 현지시간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트로이카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으며 구제금융 100억 유로 이외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 - 키프로스 재무장관 Sarris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상 중이며 2016년 만기의 25억 유로 규모 차관에 대해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요청하고, 추가로 50억 유로 규모의 차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
 - 키프로스 의회는 현지시간 3월 22일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임.

- 키프로스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은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.

- 키프로스의 경제 규모는 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과는 달리 유로존 GDP의 0.2%에 불과함.
 - 키프로스의 2011년 기준 명목 GDP는 224억 달러로 그리스 GDP 규모의 0.1% 수준임.
- 따라서 정부 자산 매각에 따른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예금자 손실 부담 방안이 키프로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시된 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.
 - 예금자 손실 부담 방안이 유로존 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음.
- 또한 ECB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변함없어 대량 예금 인출(Bank Run)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키프로스 내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 - ECB는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ECB의 기존 긴급 유동성 지원프로그램(ELA)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함.

■ 그러나 EU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EU의 경기회복과 EU 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단기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 불확실성과 더불어 경기회복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EU의 경기 회복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.
- 예금자 손실 부담 방안은 EU의 예금 보호 시스템(deposit insurance system)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럽 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예금자 손실 부담 방안은 금융기관의 예금 보장을 유로존 차원에서 강화한다는 은행연합(Banking Union)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선례를 남겼음.

(Bloomberg, WSJ, FT 등)